

아라대동제에 ‘대학정신’ 을 심자

‘축제의 꽃’ 대동제 오는 24일 개막

‘Naver ending 아라대동제’가 총학생회(회장 현웅탁) 주최로 오는 24일부터 3일간 캠퍼스 곳곳에서 열린다. 이번 대동제는 대학 구성원들과 도민들이 모두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다양한 즐길거리와 볼거리가 열린다.

첫날인 24일에는 ‘다문화가정 Green 캠퍼스 행복 나들이’라는 주제로 다문화 가정을 캠퍼스로 초청해 행사가 진행된다. 또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유학생 가요제’도 열릴 예정이다. 이를 통해 총학생회는 소외된 사람들도 함께 나누는 대동제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대동제 개막식은 교훈탑 잔디밭 무대에서 오후 7시 30분 열린다. 개막식에서는 가수 마이티마우스의 미니 콘서트가 있을 예정이다.

25일에는 교훈탑 잔디밭 무대에서 오전 10시부터 스타크래프트 대회 16강, 8강전이 열린다. 같은 장소에서 오후 3시 30분부터는 ‘게릴라게임’을 시작으로 ‘단대별 게임 빼에로’가 진행된다. 이후 6시 30분부터는 제주FC팬사인회와 블랙다이하운드, 로망스 등의 동아리 공연도 펼쳐진다. 연예인 초청 공연은 오후 7시 30분부터 달사벳과 MC스나이퍼가

참석한다.

대동제 마지막날인 26일에는 정오부터 교훈탑 잔디밭 무대에서 스타크래프트 대회 4강, 결승전이 진행된다. 오후 3시부터는 ‘단대별 게임 물뽕기기’와 동아리 엑센트의 공연이 이뤄진다. 5시 30분부터는 ‘나도 아라스타’가 진행된다. 13팀이 출마해 학생들의 숨은 끼를 발휘한다.

폐막식은 이날 오후 8시 30분부터

축하공연과 함께 진행된다. 축하공연으로는 G.NA와 BEAST가 공연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부대행사로는 거리 공연 문화를 맛볼 수 있는 ‘길거리퍼포먼스’가 진행되며 체험존, 미션존, 소원거리 등이 3일간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다. 이와함께 ‘풋살’과 다양한 장터들도 운영된다.

강보배 기자



힘내라 힘 지난 12일 대운동장에서 열린 진양제전에서 일어일문학과 학생들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장호주 수습기자

애물단지 전락한 ‘전자교탁’

오작동으로 잦은 고장… 사용미숙도 많아 개선 시급

전자교탁이 잦은 고장과 교수들의 사용법 미숙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전자교탁은 컴퓨터와 빔프로젝터를 통합해 관리할 수 있는 교탁이다. 지금까지 교양동과 일부 단과대에 전자교탁을 설치하는데 투입된 예산만 10억8천여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전자교탁은 화면이나 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등 고장이 잦다. 학생들은 많은 예산을 들인 전자교탁이 오히려 천덕꾸러기가 됐다고 입을 모은다. 사범대학의 한 학생은 “전자교탁이 고장 나는 것은 흔한 일”이라며 “기계가 작동이 안돼서 교수님이 노트북을 연결해 불편하게 수업을 진행하는 것을 본적도 있다”고 말했다.

현지현(사회 3)씨도 “갑자기 스크린에서 화면이 나오지 않아서 교수님이 말로만 수업을 진행해 내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며 “학기 내내 스피커에서 소리가 안 나와 불편을 겪기도 했다”고 토로했다.

전자교탁의 주된 고장 원인은 바이러스다. 여러 사람이 USB 등을 사용하고 수업관련 자료를 다운받으며 프

로그램에 바이러스가 자주 걸린다. 또 작동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전자교탁을 다루며 프로그램을 지우는 등 기계고장의 원인이 되는 실수를 범하기도 한다.

그러나 제주대에 전자교탁 전문 직원은 한명도 없다. 정보통신원에서 상주하는 PC Help Desk 직원 단 2명이 전체 대학의 컴퓨터 관련 수리를 도와주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들도 전자교탁 납품업체 직원이 아니라 전문적인 수리는 하지 못한다.

김태웅(교양동 기자제지원실)씨는 “교양동에서는 교실마다 전화를 설치해 고장이 날 때마다 즉각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교양동에 기자제 관련 근로장학생은 한명에 불과해 모든 수업을 커버하기가 힘이 부치는 상황”이라며 “근로장학생 뿐만 아니라 대학에 전자교탁 관련 전문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자교탁의 사용법을 제대로 모르는 교수가 많은 것도 문제다. 사용법을 숙지한 근로장학생이 올 때까지 수업이 지연되거나 수업 도중 실수로 오작동 돼 진땀을 빼기도 한다. 그럼

에도 교수들을 위한 전자교탁 사용법 강좌조차 마련되지 않아 문제다. 조흥선(중문과) 교수는 “전자교탁에는 복잡한 기계들이 모여 있어서 사용법이 어렵다”며 “전자교탁을 잘

다루지 못하는 교수들이 많은 만큼 사용법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하고 모니터링도 잘 보이게 각도를 조절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고용희 기자

알림

제31회 백록문학상 소설 부문 추가 공모

제주문학의 미래를 힘차게 열어가길 ‘백록문학상’ 제31회 출품작을 연장 공모합니다. 제주대신문 창간 57년을 기념하고, 청년 문학도를 발굴하기 위해 벌이는 이번 추가 공모에는 소설 부문에 학부학생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습니다. 올해로 31회째를 맞은 ‘백록문학상’에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응모자격 : 제주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학생
■응모분야 : 소설 (1인 1편·분량은 자유)
■접수마감 : 6월 13일(월) 18:00까지
■발 표 : 제주대신문 855호(7월 6일자)
■시상내역 : 각 부문 당선작(50만원),佳作(30만원)
■방문할곳 : 본관 대학원동(취업전략본부) 3층 언론미디어센터 행정실
■문 의 : (064)754-2278

제주대학교 언론미디어센터

2011학년도 교육역량 강화사업 선정

45억 지원… 1만명 이하 대학 중 최고액

제주대가 올해 교육역량 강화사업 지원대학으로 선정돼 45억5900만원을 지원받는다.

이는 ‘교육역량 강화사업’에 전국 4년제 국·공·사립대학 재학생 5천명 이상 1만명 이하 대학 중 최고액이다. 또 지난해 보다 6억여 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1월 2011

년도 교육역량강화사업 재정지원 대학 선정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교육역량강화사업은 교육여건 및 성과가 우수한 80개 대학이 선정돼 총 2419억여 원을 지원받는다.

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 대학 선정은 대학의 성과,교육 여건 지표로 구성된 공식(교육지표 포물라)을 통해 각 대학별 점수를 산출한 뒤 고득점

순으로 결정된다. 세부 평가 항목으로는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국제화, 전임교원 확보율,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 장학금 지급률, 학생 1인당 교육비, 등록금 인상 수준, 대입전형 지표 등이 포함됐다.

한편 제주대는 지난해에도 39억 4500만원을 지원받아 전국 4년제 국·공·사립대학 재학생 5000명 이상 1만명 이하 대학 중 최고액을 지원 받은 바 있다.

여러분들이
제주의 미래입니다!

진리정의 창조

한라산소주는 젊은이들이 제주의 미래이며 희망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제주대학 발전기금을 통해 우수교수를 지원하고 우수학생 발굴, 육성하고 있습니다.

한라산소주는 이제껏 한결같이 ‘기업이익(企業利益)의 사회환원(社會還元)’을 실현하는 기업으로 수익의 일정부분을 제주 도민을 위한 지역 발전성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6년 대한민국 우수 특산물 대상
2007년 대한민국 우수 특산물 대상
2008년 세계주류명품대회(WSC) 은상 수상
2009년 한라산물 특별정상회의 공식민찬주

한라산물 순한소주

(주)한라산

사설

틀

여유 돈이 생겼을 때 그것으로 책을 사고 서재를 꾸민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는 이후 책을 읽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다. 여유 돈으로 골프채를 사고 회원권을 샀다면 그는 골프를 치게 될 것이다.

전자오락기를 산 사람은 전자오락의 최고기록을 마치 인생의 큰 성취인양 여기면서 그에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다. 잘 노는 친구를 사귀었다면 본인도 잘 놀게 될 것이다. 공부벌레를 친구로 두었다면 덕택에 공부를 좀 하게 될 것이다.

골프채를 사놓고 책을 읽으려고 하면 여간해서는 책을 읽기가 어려울 것이다. 전자오락기를 사놓고 장기간 생각을 정리해야 하는 저술활동을 하려면, 하기 어려울 것이다. 산악자전거를 사놓고 명상취미를 가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것은 틀이 그렇게 정해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틀은 자신이 만든다.

매 순간의 선택에 의하여 내가 공부를 할 지, 독서를 할 지, 운동을 할 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이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 전에 이미 틀을 잡을 때, 인생의 한 기간이 무엇으로 채워질 것인지가 결정된다. 인생의 한 기간이 무엇으로 채워질 지가 결정되면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가 대부분 결정이 된다. 개중에는 놀고도 인생이 잘 풀리는 경우도 있다. 그것이 삶이니까. 그러나 세상사가 잘 풀리든지 그렇지 않든지, 그 사람의 영혼의 깊이는 예외 없이 틀에 의하여 결정된다.

조직의 틀은 제도에 의해 결정된다. 제도를 어떻게

게 짰느냐에 의하여 조직원이 움직이는 방향이 결정된다. 체육특기자를 우대하는 제도를 만든다면 우수한 체육특기자가 오게 될 것이다. 나뉘먹기 식으로 넓게 펼치는 장학금이 아니라 소수에게 집중되는 장학제도를 만든다면 그 소수에 들어가기 위하여 치열하게 노력할 것이다.

최근 우리 대학은 교수업적을 평가하는 규정을 개정하고 있다. 그런데 그 초안을 살펴보니 연구논문을 쓰고 연구비를 수주하는 점수를 절반으로 줄이고 강의 점수를 두 배로 올렸다. 이 틀은 연구를 대충하고 강의를 많이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강의를 잘하라는 것도 아니고 많이 하라는 것이다. 질을 따지지 않고 수업을 시간수로만 평가를 하니 그렇다. 우리 대학이 전국적인 예외가 될 모양이다.

연구논문을 게재하기 위해서는 저널에서 지정한 심사위원의 평가를 통과하여야 한다. 연구비를 수주하기 위해서는 연구사업 평가위원회를 통과하여야 한다. 그런데 강의는 평가받지 않는다. 이런 쉬운 길을 타놓으면 교수들이 연구를 하겠는가? 업적은 그냥 일을 얼마나 했느냐가 아니라 의미있는 일을 얼마나 했느냐이다. 강의는 그냥 일이다.

틀을 이렇게 잡아놓고 우리 대학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업적평가가 아무리 연봉과 연계된다고 하더라도 규정을 이렇게 바꾸어 연봉을 더 받게 되신 분들은 체할실 것 같다. 자기가 몸담은 조직의 미래를 이렇게 철저히 유리하면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해도 될까?

공동체를 회복하자

축제가 다가오고 있다. 이 찬란한 5월의 캠퍼스에서 올해도 ‘아라 대동제’라는 이름으로 대학 축제가 열리게 된다. 대학생활에서 축제가 지니는 의미는 대단하다. 그냥 노는 날인데? 대학생활에서는 ‘노는 것’도 중요하다. 노는 것이 문화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을 ‘호모 루덴스’(homo ludens), ‘놀이하는 인간’이라고도 하지 않는가.

문제는 혼자 노는 것이다. 이것은 문화의 핵심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함께’ 노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우리 대학 축제 이름이 ‘대동제’다. 엄청난 이름이다. ‘대동’(大同), 상하귀천, 남녀노소의 구별 없이 함께 어우러지고, 사람과 천지만물마저 융합하여 한 덩어리가 된다는 생각... 이 ‘대동’의 정신은, 중국 고대사상으로부터 유래하여 연綿히 이어져 온 인간의 이상이였다. 정여립, 이익, 최한기, 강유웨이, 역사적으로 수많은 이름들이 ‘대동’의 정신과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대학 축제는 내걸어진 이름에 걸맞게 진행되고 있는가. 주점, ‘인기’ 연애인 공연이라는 잔재만이 남아있는 축제는 ‘대학축제’, ‘대동’라는 이름이 부끄러울 지경이다. 주점이나 공연,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다. 엄숙함, 도덕성으로 축제를 만들 수는 없기 때문이다. 축제에 디오니소스가 없을 수 없고, 축제에 뮤즈를 초대하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주점이나 연애인 공연에 내재되어 있는 정

신이다. 지금 우리 대학축제의 주점, 공연에 내재되어 있는 정신은 무엇인가. 내재되어 있는 정신, 지향하는 방향이 존재하기는 하는가. 대량소비를 지향하며 말초감각을 자극시키는 상업적 술책에 생각 없이 매몰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축제는 성공 가능성도 없다. 대학 밖에 훨씬 더 자극적인 이벤트들이 즐비하기 때문에.

‘대학축제’, ‘대동제’의 기본정신으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 ‘축제’를 하는 이유는 결국 공동체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축제를 통하여 사람들은 하나가 된다. 고독한 개인들이 타인들과 하나임을 깨닫고 그 기쁨을 한 없이 즐기는 것, 그것이 바로 축제다. 주점이나 공연은 그것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인기인을 부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학생들은 교수님들을 애써서라도 모셔오고, 교수들은 학생들을 기꺼이 부르고, 총장은 직원들과 함께, 동문들은 후배들과 함께, 그렇게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이면 자라는 자연히 흥겨워진다. 노래는 절로 나오고, 공연도 절로 이루어진다. 그게 진짜 축제다. 예산도 이를 위해 써야 한다.

올해는 마음과 마음이 소통하는 진정한 축제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이미 개인만을 강조하던 흐름은 가고, 공동체적 가치에 주목하는 세계적 움직임이 다시 돌아나고 있다. 마이클 샌델의 책과 강연이 히트 상품이 되는 것을 보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지적 감각이 참으로 무딘 것이다.

“북한 붕괴 기대지 말고 민주화 지원통해 통일 가능성 열어야”

평화연구소 주최 ‘북한의 민주화 가능성과 한반도 통일’

평화연구소(소장 고성준 교수)와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는 지난 12일 사범대학 3327 세미나실에서 ‘북한의 민주화 가능성과 한반도 통일’을 주제로 제주권역 전문가들과 세미나를 열고 한반도 통일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북한 전문가이자 새터민 출신 1호 박사인 안찬일(세계북한연구센터)소장이 ‘최근 북한 실정과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제를 발표했다.

안찬일 소장은 “북한의 3대 세습은 성공과 실패의 가능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며 “현재 북한의 체제는 이미 일인지배체제를 뛰고 있고, 이에 대해 도전할 세력이 없는 상황”이라며 성공 가능성을 말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그는 “아직 제대로 된 세습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김정일이 사망할 경우 권력투쟁이 일어날 수 있다”며 실패의 가능성도 이야기 했다.

그는 또 북한 내 시민혁명의 가능

성도 진단했다. 안 소장은 “북한 내에 굶주리고 있는 청년군인들과 이미 깊게 뿌리내린 상인계층과 도시민들에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며 “이외에도 엘리트로 분류되던 학생집단과 기존 군인출신의 범죄집단 등 다양한 세력 등이 시민혁명을 일으킬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안 소장은 이외에도 김정은 체제의 개혁, 개방 가능성과 통일이후 발생할 갈등 문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그는 “통일 이후 여러 가지 갈등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얻어지는 이익들이 더 크다”며 “이러한 사실을 독일만 봐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고경민(제주대 학술연구)교수는 ‘중동 시민혁명과 북한의 민주화 전망’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고 교수는 “중동지역은 독재체제의 장기집권과 철권통치로 인해 인권의 유린과 부정부패가 심각했다. 또 경제적으로도 청년실업률이 대단히 높은 상황이었다”며 “이러한 요인들



지난 12일 사범대학 3227 세미나실에서 ‘북한의 민주화 가능성과 한반도 통일’을 주제로 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이 중동 시민혁명의 구조적 요인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렇지만 이러한 시민혁명을 촉진한 것은 민주주의 학습과 자유화의 경험, 정보미디어 등이 작용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존의 합의를 위한 통일 이외에도 북한의 민주화에 대한 지원을 통한 통일 가능성도 함께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 교수는 “중동 시민혁명은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바가 크다”며 “이러한 바람이 중국과 북한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에 대한 민주화 지원을 통한 변화와 붕괴를 가져오는 방향에 대해서도 연구를 확대해야 한다”며 “특히 정보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보배 기자

국어문화원, 제주어말하기 대회 접수

내달 17일 본선 대회 개최

국어문화원(원장 강영봉)이 다음 달 10일(예선)과 17일(본선) ‘2011 제주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초·중·고등학생 대상 학생부와 대학생 대상 대학생부로 나뉘며 다음달 10일 오후 2시 인문대학 2호관 세미나실에서 예선대회를 거친 후 다음달 17일 오후 2시 본선 대회를 거쳐 수상자를 가리게 된다. 참가자는 제주의 설화와 민속, 역사, 자연, 환경, 삶, 자연 등 제주문화를 주제로 개인 또는 2~3인 1조로 5분 내외로 제주어로 각자 준비한 내용을 들려주면 된다.

시상은 대학생·학생부 대상 각 1명에게 제주대학교 총장상과 30만원 상당의 상품, 금상 각 1명에게 제주대학교 총장상과 20만원 상당의 상품 등이 주어질 예정이다. 학생부는 지도교사상도 시상한다.

대회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은 다음달 2일까지 참가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하면 된다.

한편 국어문화원은 자라나는 청소년과 대학생들에게 제주인의 정서가 녹아 있는 제주어를 익히고 확산시키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매년 제주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문의=국어문화원(754-27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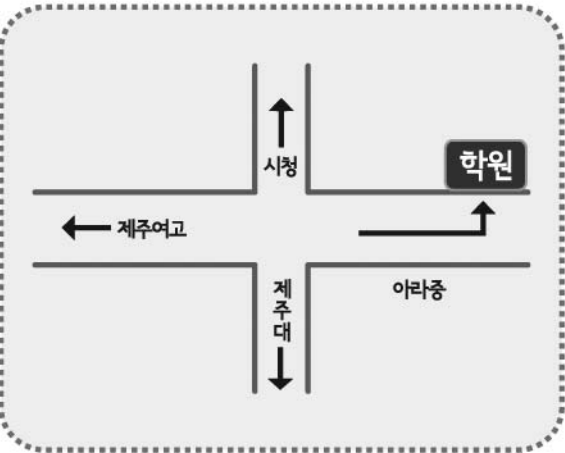
제주대신문 The Jeju National University Press

발행인·총장 허향진 편집인·주간 고호성 편집국장 강보배

우)690-75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전화(내선 064)754-2114
제주대신문 편집국 064)754-2277-9 제주대 미디어<JUMP> news.jeju.ac.kr

운전면허 제주대학교 발전후원업체 한라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

- ▶매주 운전면허 기능시험 자체 실시
- ▶셔틀버스 운행 : 제주대↔학원 (08:30~17:00)
- ▶매시 30분 제주대 정문앞 출발
- ▶주말교육가능
- ▶필기시험 교재 배부
- ▶제주여고입구 건너편(다리) ↔학원셔틀버스 운행



제주시 아라2동 1320(제주여고 입구 동쪽)
☎ 755-9900

청맥체전 정치외교학과 종합우승 정치외교학과 설립 16년만에 첫 종합우승

정치외교학과가 생인지 16년만에 첫 종합 우승을 했습니다. 이를동안 우승을 위해 열심히 뛰어준 선수단 분들과 뜨거운 태양을 받으면서도 열심히 응원해주준 학우분들과 교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가족같은 분위기로 함께 단합해서 뛰든 열심히 하는 정외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정치외교 파이팅! 사랑합니다!

제17대 정치외교학과 파란만장 학생회 일동

제주대병원 소식



제주대병원이 지난 5월 어린이날을 맞아 병원에 입원중인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는 등 행사를 진행했다.

제주대병원, 가정의 달 행사 다채롭게 열려

제주대병원(병원장 강성하)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병원을 찾는 고객을 위해 다양한 행사를 펼치고 있다.

제주대병원은 5일에는 어린이날을 맞아 소아청소년과 외래와 소아병동에서 선물 및 풍선증정, 페이스페인팅, 즉석 사진 촬영 등의 행사를 진행했다. 또 점심시간을 이용한 음악회도 함께 이뤄졌다. 이어서 지난 6일 이 버이날을 맞이해 입원중인 어르신 환자를 대상으로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발 마사지를 해 드렸다.

또한 오는 20일까지 병원 1층 로비에서는 무료로 가훈을 써주는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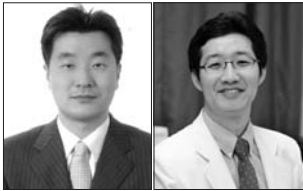
제주대병원,국가지정격리병상 운영

남광우, 최재철 교수 세계인명사전 등재

제주대병원(병원장 강성하) 정형외과 남광우 교수와 신경과 최재철 교수가 세계인명사전에 등재되는 영예를 안았다.

남광우 교수는 그동안 고관절, 인공관절치환술, 골연부조직종양, 골다공증에 관한 진료 및 임상 연구와 더불어 출기세포 등의 활동을 인정 받아 마르퀴스 후즈 후 (Marquis Who's Who) 2011년판에 등재됐다.

또 최재철 교수 역시 뇌졸중 등에 관한 활발한 연구업적을 인정받아 세계적인 인명 기관인 미국의 인명 연구소 ABI(American Biographical Institute) 2011년판에 등재됐다.



“미역·다시마, 방사능 피폭시 효과”... 수의과학연구소 심포지엄



지난 11일 국제교류관에서 ‘방사능 피폭의 위험성과 후코이단의 방어효과’를 주제로 수의과학연구소 춘계심포지엄이 열렸다.

‘방사능 피폭의 위험성과 후코이단의 방어효과’를 주제로 한 심포지엄이 수의과학연구소(소장 정종태 수의학과 교수) 주최로 지난 11일 국제교류관에서 열렸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최근 후쿠시

마 원전사고로 부각된 방사능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특히 다시마 등 해조류에 들어있는 끈적끈적한 성분인 ‘후코이단’의 방사선 방어효과에 대한 발표가 주목을 끌었다.

주홍구(수의학과) 교수는 보통의 골수세포가 방사선 피폭을 당하면 심각한 세포손상을 입는데 비해 후코이단을 처리한 골수세포는 탁월한 방어효과를 보인다는 사실을 밝혔다.

주 교수는 “후코이단이 수지산·비장세포에 면역활성효과가 있고 골수세포에 방사선 방어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번 연구는 자연성분인 후코이단으로 면역자극제와 방사선 방어제를 개발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신태균(수의학과) 교수는 후코이단을 투여한 마우스를 방사능 피폭시켰을 때 생존율이 현저히 증가한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신 교수는 “방사능 방어효과를 지닌 물질은 많지만 다시마 등 사람이 수천년간 먹어온 천연물은 해독작용이 적기 때문에 후코이단에 주목했다”며 “방사선에 피폭된 마우스가 30

일 기준으로 몇 마리 살아남는가를 분석한 결과 후코이단을 투여한 마우스의 골수·장자세포가 더 오래 살아남는 것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박재우(에너지공학) 교수는 방사능 피폭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했다. 박 교수는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도 방사능에 노출돼 있다”며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일상생활 노출 수준보다 낮아 지나치게 염려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 그는 방사능비를 맞은 농산물을 섭취해 몸안에 방사능이 축적될 가능성에 대해 “방사능 물질은 몸 안에서 점차 사라져 축적의 염려가 없다”고 말했다.

또 문창종(전남대) 교수는 방사능의 신경독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문 교수는 이온화된 방사선이 뇌의 해마에 영향을 미쳐 신경독성을 유발하고, 해마의존성 행동변화를 발생시키는 과정을 설명했다. 고흥희 기자

계절학기 개설과목 부족 불만

당국 “희망과목 수요조사에 학생들 참여해야”

계절학기에 개설되는 전공과목이 부족해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 문제는 2007년 5월 23일 제주대신문 783호에서도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개설된 계절학기 전공과목은 여전히 24개 안팎에 머무르고 있다. 제주대 학부·학과가 약 70개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크게 모자란 숫자다.

서희창(에너지공학 2)씨는 “일반 학기에 사정이 있어 수강포기를 해 계절학기에 수강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전공과목이 개설되어 않아 학점을 채우는데 애를 먹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계절학기 자체가 수업의 연장선이라기보다 학생들에게 추가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장이기 때문에 일반학기처럼 많은 과목을 제공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김현우(생명공학)조교는 “교수님들은 학기 중에는 수업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 때문에 연구에 투자할 시간이 적다”며 “방학 때는 수업을 최소화하고 연구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호(정치외교)교수는 “학생들이 열심히 노력한다면 일반학기만큼

로도 학점관리가 가능하다”며 “방학 때는 수업보다는 실력을 쌓을 수 있는 대외활동을 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학사과는 계절학기 희망 교과목 수요조사를 실시해 과목을 늘리려고 하지만 뜻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학사과 김민정씨는 “희망교과목 수요조사에서 2.3% 정도의 저조한 과목 신청률로 인해 대부분의 전공과목이 개설되지 못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홈페이지를 눈여겨보아 희망교과목 수요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충분한 수의 전공과목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혜모리 기자

소음공해에 시달리는 학생회관

소음 제재할 수 있는 기준마련해야

학생회관에 동아리방이 있는 김씨는 공간시간에 휴식을 취하기 위해 동아리방에 갔다. 하지만 그를 반기는 것은 복도에서 들려오는 시끄러운 음악소리 뿐이었다.

학생회관 복도에서 일부 학생들이 악기 연습을 해서 많은 학생들이 소음으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또 이곳에서 주위를 전혀 배려하지 않고 큰소리로 노래까지 부르는 사람들도 있어 얼굴을 찡푸리게 하고 있다. 특히 이곳은 많은 동아리방들이 모여 있어 소음공해라는 지적도 많

다.

생명대학의 한 학생은 “복도에서 연습하는 사람들 때문에 시끄럽다”며 “조용히 연습하는 학생들은 그나마 괜찮지만 큰소리로 노래까지 부르면서 연습하는 것은 자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소음공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동아리 연습공간이 부족하다는 데에 있다. 동아리방은 악기 보관만 해도 꼭 차기 때문에 복도에서 연습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송상현(생명공학 2)씨는 “동아리

방은 악기만 보관해도 꼭 찬다”며 “가끔은 문을 열기가 힘들어질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또 “동아리방은 사람이 많이 들어가야 5명 정도가 한테다”며 복도 사용이 불가피함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홍영기(경영 3) 동아리 연합회장은 “확실히 공간이 부족하지만 건물 문제는 학생회차원에서 해결하기 힘들다”고 답했다. 그는 또 “일단 음악 연습을 하는 동아리들은 지하로 내려가길 권유하고 있다”며 “학생회관을 새로 짓지 않는 한 현재로서 유일한 해결방법은 서로 양보하며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호주 수습기자

스토리텔링센터 ‘추사유배길’ 개장

스토리텔링 연구개발센터(센터장 양진건 교수)가 지난 14일 제주추사관에서 추사유배길 열림 행사를 개최했다.

추사유배길은 조선시대 대표적인 학자이자 예술가인 추사 김정희의 유배생활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3개 코스다.

이번 행사에서는 제주추사관 주차장에서 개최한 추사유배길 열림식을 시작으로 대정읍과 안덕면 일대에 조성된 추사유배길 3개 코스 체험, 추사인보 짝기, 방사탑 편지쓰기, 추사유배길 펜던트 만들기 등의 다양한 행사가 열렸다.

이 밖에 추사의 글씨와 그림, 전각 등을 활용한 추사유배상품 전시회와 무료 차 시음회, 서각 전시회도 열렸다.

이날 행사와 연계하여 제주추사관에서는 ‘추사유배길 열림과 함께하



추사 김정희의 낙관을 모아 만든 책 「완당인보」를 활용에 꾸며진 추사의 길 모습.

이 함께 열려 풍성한 행사가 됐다.

또한 오는 23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나는 유배인이다’와 ‘추사유배길 방문후기’ 등의 온라인 이벤트도 공모한다. ‘나는 유배인이다’는 추사 김정희처럼 절망과 좌절을 딛고 일어난 사연을 선정한다.

한편 양진건 센터장은 “역사와 문화가 함께하는 추사유배길을 통해 추사 김정희의 9년의 유배시절 동안의 집념과 인연, 사색을 느껴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유배길 홈페이지(www.jejuyubae.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봉현(서울·31)씨가 지난 13일 제주대 정문에서 해군기지 건설 중단을 촉구하며 영화평론가 양윤모씨에 대한 경찰의 집단폭력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아토피Bye~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

의학전문대학원 부설 환경보건센터

의학전문대학원 부설 환경보건센터(센터장 홍성철)가 ‘아토피 Bye~ 자연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오는 28일부터 운영한다.

아토피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되는 숲을 활용해 이뤄지는 이 프로그램은 환경보건교실의 일환으로 오는 9월 24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운영할 계획이다. 이는 친환경적인 체험활동과 환경보건교육을 통해 아토피질환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나 부모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 프로그램은 5월 28일, 6월 11일, 7월 9일, 9월 10일, 9월 24일 열릴 예정이다. 프로그램으로는 오전에 △자연해설사와 함께 자연생태숲(한라생태숲 또는 무릉곶자왈)을 탐방하고 오후에는 △자연물을 이용한 만들기 △아토피질환 OX퀴즈 △친

연염색으로 손수건 만들기 △26종 알레르기 검사 △문화 참여 행사가 있다.

모집은 선착순으로 이뤄지고 있다. 또 제주대병원에 아토피질환자로 등록된 아동이나 아토피, 천식 안 심한 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학생을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환경보건센터 홈페이지(http://www.e-safe.or.kr) 공지사항에서 프로그램 참가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hslee0289@jejunu.ac.kr)로 보내거나 환경보건센터로 전화(064-754-3808, 717-1597)하거나 팩스(064-726-3803)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이 프로그램은 환경보건센터와 제주보건소(소장 왕옥보), 서귀포보건소(소장 김은형)가 공동주최한다.

국민연금공단, ‘4행시 짓기 대회’ 개최

평생월급과 국민연금 주제 선택

국민연금공단 제주지사가 대학 구 성원들에게 국민연금제도를 올바르게 알리기 위해 대동계 기간에 ‘4행시 짓기 대회’를 연다.

4행시는 ‘평생월급’과 ‘국민연금’이라는 주제 중 선택해 작성하면 된다. 대회 상금은 대상에 해당하

는 NPS상 30만원부터 우수상 5만원까지 총 9명에게 지급된다. 수상작 평가 기준은 국민연금제도 이해도, 구성도, 창의력이다. 수상작 발표는 대동계 마지막날 오후 2시 홍보관에 시행한다. 참가신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학생생활관 자치위 운영부실 제역할 못해

역할과 책임에 정당성 부여해야

학생생활관 학생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한 학생생활관 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가 제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2학기 학생생활관 자치위원회가 본격 출범했다. 그러나 출범만 했을 뿐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고 있다. 현재 자치위가 하고 있는 일은 생활점점 지원과 체육용품 대여가 전부다. 이외에 새로 입주하는 학생들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이나 체육대회 행사는 행정실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원인에는 생활관 행정실에 부족한 지원과 자치위 스스로 생활관생들을 대변한다는 정당성 부족이 지적되고 있다.

현재 생활관 행정실이 자치위에

지원하고 있는 것은 자치위실과 1년을 통틀어 200~300만원 안팎의 지원금이 전부다. 이러한 지원금을 바탕으로 현재 9명의 자치위들은 생활점점 지원과 체육용품 대여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우선 입주권 조차 확보가 안 돼 기존 자치위 인원들 중 2/3가 생활관에 떨어져 자치위 자체가 존폐위기까지 놓였었다.

지난해 자치위 활동을 했던 한 학생은 “처음 자치위가 만들어 질 때 구두로 우선입주권을 약속 받았다. 그러나 자치위 학생들 중 우선입주권을 받은 학생들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태환 학생생활관 팀장은 “지난해 자치위 임기 자체가 2월까지였기 때문에 우선입주권을

줄 수 없었다”며 “새롭게 자치위가 구성된다면 우선입주권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자치위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도 “정당성을 갖춘 자치위가 출범하면 자치위와 협의를 통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생활관생들은 자치위가 빨리 생활관생들에게 인정을 받고 제대로 된 지원을 받기를 희망하고 있다.

오소진(전자공 1)씨는 “자치위가 자리를 잡으면 생활관생들도 편하게 생활점점이나 불편 등을 전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자치위 제출법을 준비하고 있는 강현진(해양토목공 4)씨는 “자치위 스스로 생활관생들을 대표할 수 있도록 선거제를 도입하라고 한다”며 “생활관생들에게 선거제 시행을 위한 서명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강보배 기자

뉴스 클리핑

7급 견습공무원 최종 3명 합격

제주대 재학생과 졸업생 등 3명이 행정안전부 ‘2011년도 견습직원(지역인재) 선발시험’에 최종 합격했다.



고지현



주미



양재영

이번 7급 견습공무원에 합격한 학생은 행정직에 고지현(법학 4)학생과 기술직에 주미(컴퓨터교육 11졸), 양재영(컴퓨터공학전공 07졸)씨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135개 대학으로부터 추천받은 368명에 대한 서류전형과 필기시험(PSAT : 공직적성검사)을 통해 행정직 35명과 기술직 35명 등 총 70명을 최종 선발했다.

합격자들은 내년 3월경부터 중

앙공무원교육원에서 4주간의 기본교육과 3주간의 중앙부처 순환근무를 한 다음 부처배정을 받아 견습근무를 시작하게 된다.

또한 견습기간 중에는 7급 1호봉 수준의 급여를 받게 되며, 1년 동안 견습근무를 한 후 근무성과 업무추진능력 등에 대한 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일반직 7급 공무원으로 최종임용된다.

신혜선씨, 서암학술장학재단 지원 선정

신혜선(생물학과 대학원 박사과정)씨가 서암학술장학재단의 2011년 제20기 국내 박사과정 연구지원 사업’에 선정돼 대학원 등록금 전액과 연구회비를 지원받는다.

올해 전국에서 선정된 대학원 박사과정 학생은 인문 사회과학

분야 6명, 이공학 분야 7명이며, 제주지역에서는 신혜선씨가 유일하다.



신혜선

행정대학원 고급관리자과정 현장학습 실시

행정대학원 고급관리자과정(회장 강순명)은 지난 7일 ‘제주약용식물을 찾아서’를 주제로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학습에는 한리수목원 김철수 소장와 함께 40명의 원생들이 도내 오름들을 탐방했다.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장학금 전달

경영대학원 제22기 최고경영자과정(회장 임용대)은 지난 13일 제주칼호텔에서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장학금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학업성적이 우수한 최환(관광경

영 4) 학생에게 AMP(최고경영자과정) 장학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한편 제22기 최고경영자과정은 이날 장학금 전달을 시작으로 매 학기별로 1명을 선발해 장학금을 전달하기로 했다.

대학축제, 연예인 공연 등 소비행사 전략 안타까워

학생이 주인되는 축제로 탈바꿈하려는 대학들도 많아

중간고사가 끝난 5월은 학생들의 몸과 마음이 해방되는 시기다. 따뜻해진 날씨만큼 교내외에서 열리는 행사들도 많지만, 이 가운데서도 학생들이 가장 손꼽아 기다리는 것은 대학의 가장 큰 축제인 '대동제' 일 것이다.

그러나 학생들은 이렇게 학수고대 하는 대동제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일까. 서로 하나의 마음으로 뭉치고, 화합하는 기회를 뜻한다는 대동제. 과연 우리는 제대로 대동하는 축제를 치르고 있을까. 언제부터인가 대학생들의 축제의 장이 연예인들의 공연장으로 전락한 것은 아니냐는 우려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일부 대학에서는 과도한 연예인 부르기로 인해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경원대는 지난 11~13일 내내 초호화 연예인 축제를 진행했다. 경원대 축제에는 f(x)를 비롯해 2NE1, 레인보우, 아이유, 지나, 싸이, DJ DOC, 싸이, 슈퍼팀, UV, 세븐 등 최근 인기있는 대중가수들이 총출동했다. 3일간 열리는 축제에 초청된 가수만 12명에 달한다. 연예인 초청비용으로 모두 2억 원이 사용됐다.

경원대 관계자는 "경원대가 가천의대와 통합하면서 경원대의 이름으로 여는 마지막 축제이기 때문에 화려하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었다"며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연예인이 많이 오게 됐다"고 말했다.

연세대에서는 연예인 공연을 볼 수 있는 티켓을 구매하기 위해 경쟁이 불기도 했다. 연세대 축제에는 오픈지카라멜, 티아라, 2AM, 스위트소우, 안지환, 슈퍼팀, 김장훈, 지나 등 12팀이 무대에 올랐다. 그런데 연세대 축제는 모든 학생들이 연예인 공연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입장권을 구매하지만 연예인 공연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1만원에 판매된 입장권을 구하지 못한 학생들은 축제를 보기 위해 암표를 사야하는 피해를 입기도 했다. 티켓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연세대 응원단 '아카리카'는 이 같은 문제를 막기 위해 지난달 28일 홈페이지에 '티켓을 중복으로 신청해 적발되는 경우 신청한 티켓 모두 박탈하겠다'는 내용의 공문까지 올렸다.

이에 대해 연세대 관계자는 "연예인을 부르는데 매년 1억 원 이상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티켓판매로 충당이 되고, 기업에서도 후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학교의 별도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니기에 축제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연예인을 대학축제로 모시는 데는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할까. 지난 3월 대학축제 가수 초청비용에 대한 국제청 조사가 따르면 한 공연 당 박빙은 4500만원, 소년시대는 2500만 원 이상, 2PM은 2500만

원, 비스트는 1700만원, 카라는 1600만 원 이상, 티아라 1600만원, 시크릿은 1400만원 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연예인 섭외에 들어가는 예산은 비교적 재정이 열악한 국립대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 경북대는 올해 대동제에 총 5개팀을 섭외했는데 전체 대동제 예산의 20%, 전남대는 매년 축제에서 예산에 절반에 가까운 돈을 연예인 섭외에 쓰고 있는 상황이다.

대동제가 연예인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에 대해 우리 학교 내에서도 찬반 논쟁이 뜨겁다. 찬성하는 쪽에서는 제주지역은 연예인들을 만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축제를 통해서라도 연예인들을 보여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리대학도 이번 축제에 총 지나, 달샤벳, MC스나이퍼 등 5개의 연예인 팀을 부를 예정이다.

고동호씨(행정 1)는 "학생들이 시험이나 어학성적 등 여기저기 치이면서 사는데 학교 축제때만이라도 학생들이 재밌게 놀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학생들이 가수공연을 보고 싶다면 공연을 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또 경상대의 한 학생은 "제주에서는 연예인을 보는 것이 쉽지 않는데 이런 축제 때라도 연예인들의 공연을 볼 수 있어 야겅겅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한편에서는 가수를 초청해서 축제를 흥행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의 참여를 통해서 대학만의 고유한 문화를 만들어 내야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조승주씨(생물산업 1)는 "가수들이 하루 종일 공연하는 것도 아닌데 연예인 초청에 드는 비용이 너무 과하다"며 "이러한 돈이 학생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정숙(생활환경복지학부) 교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대학축제가 놀자판이 된 것 같다"며 "강사를 초빙해 학생들이 접하기 어려운 특강을 열어 건설적으로 예산을 지출하면 좋겠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모든 대학들이 연예인을 중심으로 축제를 여는 것은 아니다. 일부 대학에서는 이러한 연예인 중심 축제에서 탈피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부산지역 대학들 사이에서는 기존의 가수 초청 규모가 축제의 질을 따지는 척도가 돼버린 최근의 관행을 탈피하자는 공감대가 자연스레 형성되고 있다.

부산외대는 가수 공연비를 줄여 동아리나 학교별로 여는 행사에 지원해주거나 공모전의 상금으로 이용하기로 했다. 또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나 남모르게 선물을 베푸는 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지원한다.

부산외대 총학생회장은 "가수 초청대신 장학금 지급이나 학생들이 만들어나가는 행



연예인 초청 공연을 홍보하는 현수막들(위). 지난 2008년 대동제에서 연예인 공연을 감상하는 학생들(아래).

사비용으로 쓰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반발은 없다"며 "학교의 특성상 여름계열이 많았더니 외국의 문화와 관련된 행사를 많이 열었으며, 올해는 취업박람회와 같은 학생들에게 유익한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대는 축제에 가수공연보다 문화공연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 또 2008년부터 취업 페스티벌을 지속적으로 개최했다. 올해 취업 페스티벌에서는 단순한 정보제공이 아니라 세부적인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호응을 받았다.

학생들의 진로탐색은 물론 단과대학별 동문 선배를 초청하여 취업, 직장생활, 사회경험 등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그 외에 강연회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했다. 매해마다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며 완성도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대구대 전환용 총학생회장은 "가수 한 명이 30분 공연 가는 것보다 여러 인디밴드가 3시간 공연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말했다.

영남대는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영남대 총학생회는 올해 외국인학생들과 함께하는 씨름대회와 천마공원대제전, OX퀴즈 대회 등의 행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백인 가무

제'라는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 또 학교별 신입생이 나와서 자신들의 끼를 보여주고 우송하는 학교에는 모꼬지(MT)의 교통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영남대 여승원(총학생회 정책위원장)씨는 "연예인이 축제의 촉매 역할은 하지만 주인은 학생"이라며 "학생 자신들이 자체적으로 축제 분위기를 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기획중"이라고 밝혔다.

우리대학에서도 대학축제가 연예인 중심으로 흐르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용택 총학생회장은 "연예인은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방안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는 "취업박람회도 함께 진행할까도 고민했지만 자치도와 협력해 따로 여는 것이 더 큰 효과를 얻을 것 같아서 함께 진행하지 않았다"며 "대신 장애인 체험행사와 다문화가정 행사, 외국인 학생 행사 등 소외된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는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학생복지과 변수철 팀장은 "과도한 연예인 부르기에 대한 학생들의 우려를 알고 있다"며 "총학생회가 너무 연예인들만 초청하지 않도록 조절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명지 수습기자



제주대학교(총장 허향진)는 JDC·제주의소리와 함께 학생들에게 국제화 시민의식을 고취시키고 미래지향적 마인드를 키워주기 위해 대학생 아카데미를 마련했습니다. 국내외 명강사들을 초청해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국제교류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대학생 아카데미는 오는 6월 14일까지 총 13강좌가 열립니다. 학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세상에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건 없다

바람직한 인재상 / 큰 꿈을 향하여

허영호 LG이노텍 사장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1977년 LG전자의 전신인 금성사에 입사하게 된 것은 어린 시절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였다. 유년 시절 내 꿈은 우리나라에 TV를 널리 보급하는 것이었다. 당시에는 12인치짜리 흑백 TV를 봤었다. 하지만 마을 내에 TV를 갖고 있는 가정은 불과 2~3곳에 그쳤다. 저녁이면 그 집 마당에 모여 드라마 '여로'를 봤었다. 그만큼 TV 보급이 많이 이뤄지지 못했다.

첫 직장 생활은 금성사 생산 공장이었던 구미에서 시작했다. 지방에서 살면서도 서울에서처럼 걸음걸이를 빨리했다. 아직도 젊은 사람들과 등산을 해도 뒤처지지 않는다. 첫 발령지 구미에서 시작해 일본과 서울까지 지방과 해외의 근무를 거치며 경험한 어려움들은 기업경영의 자양분이 되고 있다.

지난 2000년 직원 480명, 매출 2900억원에 불과했던 LG이노텍은 지난해 직원 3400명, 매출 4조원을 넘어섰다. 매출 규모로는 세계 10대 전자부품기업에 든다. TV용 핵심 부품인 튜너, DVD플레이어에 들어가는 초정밀 소형 모터 등 세계 1등 제품 4개를 보유해 기술력으로 뛰어나다.

하지만 이런 실적을 거두는 데는 뼈를 깎는 아픔이 있었다.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에는 퇴출대상 기업 리스트에 오를 정도로 사정이 심각했다. 수많은 품목을 다루는 부품산업 특성상 이를 극복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이를 위해 고객층을 세분화해 신규 거래처에는 단가가 좀 비싸더라도 성능이 뛰어난 부품을 제시했다. 무조건 담핑을 쳐서 물량부터 확보하는 전략은 지양했다.

또한 '우리는 안 된다'는 패배감에 젖어 있던 직원들에게 회사 주인공이라는 자부심을 심어주고 경영과 혁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과 길을 열었다. 덕분에 서서히 매출이 올랐



허영호 LG이노텍 사장

고 시장에서 인정을 받았다.

특히 직원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실행력과 이를 위한 DNA다. 글로벌 기업으로 가기 위해서 목표를 성과 창출로 반드시 연결해야 하고 여기에는 실행력이 필요하다.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DNA를 갖춰야 한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 목표·성과 달성을 위한 열정·스피드·자율·창의 등이 갖춰져야 한다.

세상에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건 없다. 그저 공짜로 주겠다면 솔깃하지만 반드시 대가가 따르기 마련이다. 노력 없이, 고통 없이, 희생 없이하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선택의 자격은 누구에게나 주어지지 않는다. 자신의 선택과 목표설정, 실행, 자신감 쌓기와 같은 과정이 일상에서 반복돼야 한다.

올해 기업경영 화두는 '글로벌 기업 도약을 위한 사업가치 혁신'으로 정했다. 특히 2015년 연매출 10조원, 글로벌 1등 제품 10개라는 목표를 수립, 전 세계 5위 기업으로 성장할 목표를 갖고 있다.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조직의 힘이 중요하다. '한사람의 꿈은 꿈으로 끝나지만 만인의 꿈은 현실이 된다'는 격언을 되새기고 있다.

정용복 언론미디어팀장

대학축제 변신사

차분하게... 의미있게... 성숙했던 대학축제

2천년대 들어 흥청망청 연예인 공연장 변질

우리대학에 공식적인 축제가 시작된 것은 1965년 개교 13주년을 맞아 처음 열린 용연제다. 당시 개교기념식을 끝마치고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선포가 이뤄지면 본격적인 축제의 막이 올랐다.

제1회 용연제의 축제 프로그램을 보면 △총학생회 주최 학생·학교당국·총동창회간의 간담회 △제주도문제연구회 주최 본도 개발 심포지엄 △노래잔치 △음악감상회 등으로 열렸다. 이 시절 축제에는 프로그램으로 제주도의 개발을 주제로 심포지엄이 열릴만큼 학생들의 학구열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또 축제 규모에서도 큰 차이를 보였다. 60년대 후반에는 제주대가 종합대학으로 승격이 이뤄지기 전이어서 캠퍼스도 웅담과 서귀포로 분리돼 있었다. 이로 인해 축제 규모가 지금에 비해서 작을 수 밖에 없었다. 특히 학교시설이 강당을 제외하고는 행사를 치를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그래서 음악감상회는 시내 다방에서, 세미나는 예식장을 빌려서 치뤄지기도 했다.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학생들의 참여 열기는 어느때보다 뜨거웠던 시기였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축제가 열리면 이제까지 배우고 익혔던 것들을 풀어내는 장으로 활용했다.

그 시절에는 축제기간도 주로 체육대회와 함께 이뤄져 5일동안 진행됐다. 또 축제 자체가 흔치 않고, 캠퍼스 자체가 도시 중심부와 근접해 있었기 때문에 용연제는 도민들도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제주 전체의 축제로 진행됐다.

이를 위해서 시내에서 공연·전시·발표회 등이 이뤄졌다. 또 카니발, 보디빌딩, 세계의상 전시회 등 평상시 도민들이 즐길 수 없는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세계의상 전시회는 하와이 민속복장을 입고 홀라춤을 선보여 열띤 호응을 받기도 했다.

이외에도 제주도의 지성의 전당으로써 축제 기간에 중·고등학생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청소년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상담하는 등 제주대에 대한 이미지도 제고시키는 기회로 삼았다. 그리고 백일장이나 축구대회를 대학 내에서 개최함으로써 우리대학교를 알리기 위해 노력했다.

우리대학 축제에서 본격적인 전야제가 이뤄지기 시작한 것은 개교 15주년을 맞는 67년도 축제였다. 전야제는 삼성혈에서 성화

를 채화하고 시내를 달려 웅담앞 앞에 있던 암자에 안치했다고 한다.

또 축제에서는 제주대 메이퀀를 뽑기 위한 '5월의 여왕' 선발대회가 열리기도 했다. 그 시절은 여학생들이 적었던 시절이라 여기서 뽑힌 여학생은 모든 남학생들의 선망에 대상이 되기도 했다.

강민수(동물생명공학전공)교수는 "이 시절은 학생들 스스로 대학생이라는 자부심이 강했던 시기였다"며 "이로 인해 학생들 스스로 축제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무언가 보여주겠다는 의지가 강했다"고 말했다.

1980년 제주대는 기존에 웅담과 서귀포에 나뉘어 있던 캠퍼스를 지금의 아라캠퍼스로 통합 이전했다. 이로 인해 용연제라는 이름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새로운 축제 이름을 찾기 위한 공개 모집이 이뤄졌다. 이 공모에서는 총 61개 명칭들이 올라왔다. 이중 '아라축전'이 새로운 이름으로 정해졌다.

80년대는 민주화의 열풍이 불던 시기던 만큼 축제들도 이러한 영향을 피할 수 없었다. 특히 이전 후 처음으로 치뤄진 개교 29주년기념 아라축전이 5·18광주민주화운동으로 대학들의 잇따른 휴교조치가 이뤄져

축제가 열리지 못했다.

80년대에는 5월 축제와 더불어 학교행사들이 함께 이뤄지기도 했었다. 이로 인해 축제와 학교행사 모두 학생들의 참여가 활성화 되기도 했다. 또 아라축전도 좀 더 다양한 내용들이 다뤄졌다. 8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인 민주화 운동이 벌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민주화 운동은 축제와 같은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행사보다는 학생들 내부적인 모임을 통해 이뤄졌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대동제라는 명칭이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91년 축제부터였다. 이 시절 제주대는 학생운동이 활발했던 시기였다. 특히 탐동매립 반대, 송악산 군사기지 반대, 제주도개발특별법 반대 등 제주도를 둘러싼 문제에 대해서 학생들의 반대 투쟁 등이 지속됐다.

축제의 내용도 이러한 제주지역 현안문제에 대한 토론회나 세미나 등이 이뤄졌고, 동아리들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 사람들에게 알리는 행사들이 이뤄졌다.

특히 4·3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을 위한 운동은 90년대 최대 쟁점 사항이었다.

이러한 지역현안 문제에 대한 논의는 90년대 말까지만 해도 대동제의 주요 테마로



1992년 개교 40주년 아라대동놀이 사진(위), 1998년 아라대동제 사진(아래).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이때부터는 학생들의 관심의 폭이 넓어가고 IMF의 여파로 취업문제가 대두되면서 학생들의 참여가 크게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2000년대 축제는 대중·문화 중심에 흐름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특히 학생들의 참여

가 줄면서 학생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인기 연예인 공연을 시작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인기 연예인 부르기는 그 공연에는 학생들이 몰려들지만 다른 행사에는 학생들이 참여하지 않는 등의 문제를 보이고 있다.

강보배 기자

위험물취급 건물 내진보강과 위험물의 철저한 관리 필요

학술기고 지진에 안전한 건물이란



고동우(건축학부) 교수

지난 4월 일본 동부 해안에서 발생한 규모 9.0의 지진과 그로인한 쓰나미, 그리고 원자력발전소의 폭발은 거대한 자연의 힘 앞에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지 보여주는 사례였다. 그리고, 늘 그렇듯이 한동안 방송에서는 우리나라도 지진에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지진에 대해 경각심을 갖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지진은 우리가 믿고 서 있는 지구가 생성되면서부터 지진이 발생해 왔기 때문에, 우리의 아주 먼 조상부터 지진을 겪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아주 오래전 인류들은 지진을 신이 노한 것으로 보고, 제발 노여움을 풀어달라는 기원을 했었다. 이후 과학이 발전하면서, 19세기 말에 이르러 지진은 지반의 움직임으로 인해 발생하는 과학적인 현상임을 밝혀내면서 오늘의 지진공학에 이르게 되었다. 지구를 덮고 있는 지각판이 아주 조금씩 움직이다가, 일정 한계를 넘어서면 큰 진동이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지진은 지각판과 지각판이 만나는 판 경계에서 주로 발생하고, 대표적인 지진발생지역으로 알려진 환태평양지진대 또한 태평양판과 주변의 여러 판들이 만나는 지점이다.

지진의 크기는 어떻게 나타내나?
우리나라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기상청 홈페이지에는 거의 실시간으로 발생한 지진에 대한 정보가 바로 뜨게 된다. 그때 홈페이지에는 “지진의 규모”, “진원시”, “진앙”, “참고사항”이 제시된다. “지진의 규모”란 지진 발생 시 지진의 크기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양으로서 진동에너지의 의미한다. 미국의 지진학자 C.F.Richter가 처음으로 이와 같은 개념을 정립하였기에, 흔히 “리히터 규모 4.0의 지진”과 같이 표현한다. “진원시”라 함은 지진이 발생한 시각을 의미하며, “진앙”은 그림 1에서 보듯이 지진의 발생한 땅속의 지표면을 의미한다. 그리고, “참고자료”에는 사람들이 어느정도 지진을 느끼는지를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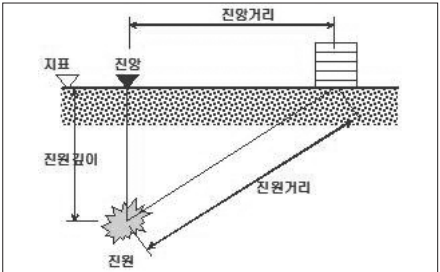


그림1 지진발생지와 건물 사이의 거리

그렇다면, “진도”라는 것은 무엇인가? “진도”는 지진이 발생하였을 때, 사람들이 느끼는 강도를 지표화하여 나타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앞에서 언급한 2008년 제주에서 발생했을 때, 한림지역에 사는 분들은 창문도 떨릴 정도의 진동을 느꼈겠지만, 동쪽 성산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거의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듯 진앙거리가 얼마인가에 따라 지진으로 인한 진동을 다르게 느끼기 때문에, “진도”는 지진의 크기를 나타내기에는 적절하지 못하다. 따라서, 지진의 크기를 말할 때는 지진의 에너지량에 바탕을 둔 “규모”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내진설계가 된 건물의 의미는?
우리나라 현행 내진설계에서 제시하는 내진설계의 목표를 쉽게 풀어 쓴다면 “2400년에 한번 발생할 수 있는 지진의 2/3수준의 지진에 대해 건물이 붕괴되지 않는 수준으로 건물을 설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말에는 두가지 사실이 내포되어 있다. 하나는 “2400년에 한번 발생할 수 있는 지진의 2/3 수준”이라는 지진의 크기, 그리고 또다른 하나는 “건물이 붕괴되지 않을 수준으로 건물을 설계”한다는 내진설계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일반인들이 우리나라의 설계지진이 얼마냐? 라고 물었을 때, “2400년에 한번 발생할 수 있는 지진의 2/3 수준의 지진”이라고 얘기한다면, 대부분 알아듣지 못할 것이므로, 일반적으로는 이를 대략적으로 환산하여 규모 5~6 정도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한다.

그렇다면, 내진설계가 된 건물은 규모 5~6 정도의 지진에 대해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제주도에도 규모 5~6의 지진이 발생하면 우리집은 안전할까? 일반적인 건물로서 내진설계가 잘 되었다면, 그 건물 바로 밑에서 규모 5~6의 지진이 발생하였을 때, 그 건물은 붕괴 직전에 이른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지진이 발생하면 건물에는 가구들이 넘어지는 것은 물론, 창문이 깨지고, 화재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첫 번째 지진이 끝나면 바로 집을 싸고 밖으로 나와야 한다. 여진에 의해 건물이 완전히 붕괴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진기준에서는 건물의 용도에 따라 중요한 건물(소방서, 방송국, 병원 등)들은 지진하중을 일반 건물의 1.2배 또는 1.5배하여 설계하도록 규정하여, 규모 5의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건물이 붕괴되지 않음은 물론, 비상사태 발생 시 도시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여유있게 설계하도록 하고 있다.

지진에 안전한 건물이란?
지진에 대해 건물이 안전해야 하므로 건물을 튼튼하게 지어야 한다고들 한다. 그러

나, 무턱대고 튼튼하게 짓기에는 지진이 발생할 확률로 따져볼 경우 지나친 과잉설계가 되면서 비경제적인 건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 건물을 튼튼하게 짓는다는 것은 건물 각 부분(기둥, 보, 벽체 등)의 크기를 크게 만든다는 얘기인데, 이 경우 건물을 짓는데 필요로 하는 재료의 양이 크게 증가할 뿐만 아니라 내부공간의 활용도도 크게 떨어지게 되므로, 경제성이 없게 된다. 지진에 대해 안전한 건물을 설계하기 위한 아주 기초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건물의 일부부재가 파괴되어 변형이 발생하더라도 건물 자체가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설계 시 횡방향철근의 상세를 조금만 바뀌주는 것만으로도 가능하다. 기둥에 내진상세를 적용한 가장 전형적인 사례가 그림 2에 나타나 있다. 첫째, 기둥을 설계함에 있어 기존의 약 300~400mm로 되어 있는 피철근 간격을 약 1/2정도로 줄여주면, 피철근에 의한 콘크리트의 구속효과가 발생하여 콘크리트의 강도와 변형능력을 증진시키고, 이는 결과적으로 기둥의 변형능력을 크게 증진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둘째, 기둥의 주근에 피철근을 시공할 때 90도 갈고리를 사용하지 않고 135도 갈고리를 적용하면 기둥에 과도한 축력이 작용할 때 콘크리트에 작용하는 압축력으로 인해 갈고리가 기둥 밖으로 튀어나가지 않아 지진 시 갑작스럽게 압축력이 크게 증가하더라도 충분히 견딜 수 있게 한다. 기둥뿐만 아니라 보, 벽체 등에도 지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은 많이 제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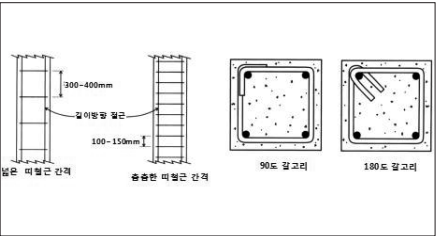


그림2 내진상세와 비내진상세의 비교

부재들의 변형능력이 증진된 것만으로 지진에 안전한 건물이 될 수 있을까? 그림 3은 지진에 대한 세가지 유형의 건물의 파괴메카니즘이다. 그림 3(a)는 보-기둥골조로서 보와 기둥이 형력에 저항할 수 있는 건물이고, 그림 3(b)는 지상 1층을 주차장 또는 상가의 용도로 만들기 위해 보-기둥 골조로 만든 후 그 위를 주거용도의 벽식구조로 만든 필로티형 건물이고, 그림 3(c)는 벽체로만 만들어진 건물들이다. 이 그림에서 동그란 점으로 나타난 부분이 지진에 의해 파괴된 부분을 의미하는데, 건물이 파괴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림 3(a)는 10개의 부재가 설계강도를 초과해야 붕괴되고, 그림 3(b)는 4개의 부재, 그림 3(c)는 단 한 개의 부재만 설계강도를 초과하면 붕괴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만약 세가지 건물이 똑같은 강도에 의거하여 설계되었다

면, 그림 3(a)의 보-기둥골조 형식의 건물이 가장 여유도가 크고, 그림 3(c)의 벽식건물의 여유도가 가장 작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현행 설계기준에서는 이와 같은 사항을 기본적인 수준에서 제시한 후 설계자가 적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앞에서 말한 부재 수준에서의 변형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와 함께, 시스템적으로 건물의 여유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조치를 함께 맞물려 설계에 반영한다면, 경제적이면서 지진에 대해 훨씬 안전한 건물을 만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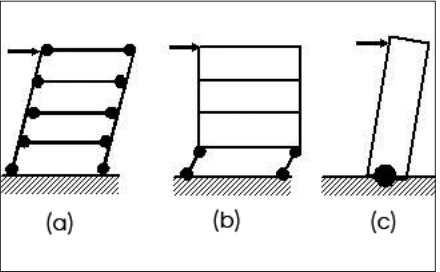


그림3 지진에 대한 건물의 파괴메카니즘

지진에 대한 대학교 건물의 안전
외국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방송에서는 학교건물의 내진설계 또는 내진보강이 시급하다는 방송을 많이 볼 수 있다. 왜 그럴까? 학교에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어린 학생들이 많아서? 여기서 말하는 학교는 초, 중, 고등학교로서 지진이 발생하여 집에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자신이 살던 집이 안전하다는 판정을 받기 전까지 학교로 대피하기 때문에 학교의 내진설계가 중요한 것이다. 대학교 건물의 경우, 이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자유롭다. 하지만, 대학건물도 대학건물대로의 각종 실험실이 많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 첫째, 초기 설계용도에 적합하게 각 실을 사용해야한다. 보통 학교건물을 설계할 때, 일반 강의실, 일반적인 실험실, 그리고, 중량의 장치가 들어가는 실험실로 나누어 용도에 맞는 하중을 적용하여 설계가 진행된다. 특히 지진하중의 경우 지반의 움직임에 대해 건물에 작용하는 관성력이므로, 각종의 중량에 큰 영향을 받는다. 원래 설계는 강의실 용도로서 단위면적(m²) 당 3kN만 작용하는 것으로 설계하였는데, 단위면적당(m²) 5kN의 중량물이 설치된다면, 해당층에 작용하는 지진중은 당초 설계하중의 1.7배의 하중이 작용하여 건물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둘째, 각종 위험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중요하다. 지난 일본지진에서도 처음에는 지진과 쓰나미였으나, 그후에는 후쿠시마원전의 폭발이 큰 문제로 대두되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내진설계가 된 건물일지라도 만약 규모 5~6정도의 지진이 발생하면 붕괴 직전까지 도달하게 되어, 건물은 안전할지라도 각종 위험물이 노출된다면 건물의 피해 이상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감동(Emotion)으로 지식(Knowledge)을 만나다

● 안권의 책

책을 읽지 않은 지 꽤 되었다. 자랑할 일은 분명 아니나 요즘 나는 책을 읽지 않는다. 시간이 없어서라거나 바빠서라거나 따위 식상한 변명을 늘어놓을 생각도 없다. 그냥 책읽기를 쉬고 있는 중이다. 나는 한 권의 책만 진득하게 읽지 못한다. 예외도 있지만 거의 두 세권의 책을 동시에 읽는 버릇이 든 탓이다. 자기 전에 읽는 책, 밥 먹으면서 훑어보는 책, 화장실에 고즈넉히 앉아 읽는 책이 다르다. 그래서 읽어낼 때는 남보다 많은 양을 읽는 것 같은데 요즘처럼 읽기를 쉬다보니 남보다 훨씬 무식해지고 있는 느낌이 든다. 하지만 난 알고 있다. 그동안 밀쳐둔 파울로 코엘료의 『피에트라 강가에서 나는 울었네』와 J.M.G. 르 클레지오의 『허기의 간주곡』이 머잖아 내 손에 다시 쥐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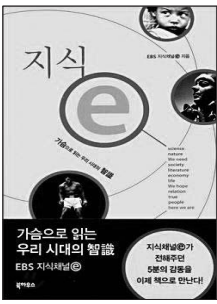
그러나 그에 앞서 나는 EBS지식채널 ⑥의 『지식⑥』1,2,3권 시리즈를 다시 훑어보는 것으로 이번의 독서 휴식을 끝내고 싶다. 이 책들은 사전도 아닌 것이 내가 몰랐던 오만가지 지식을 다 담고 있고, 소설도 아닌 것이 한번 손을 대면 쪽 읽어나가는 재미를 주고, 시집도 아닌 것이 다 읽은 뒤 긴 여운으로 가슴을 울리는 무엇인가가 있다. 서너 번도 더 나를 끌어들이는 묘한 매력의 책이다. 그리고 보니 책 표지에 ‘가슴으로 읽는 우리 시대의 지식’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다. 2005년부터 EBS를 통해 방송된 프로그램으로 ‘e’를 키워드로 한 자연(natur⑥), 과학(sci⑥nce), 사회(soci⑥ty), 인물(p⑥ople) 등 다양한 소재(지식, knowl⑥dge)를 다루는 줄은 익히 알고 있었으나 ‘e’가 ⑥motion을 뜻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새삼 든다. 감동 속에서 지식을 얻을 수 있다면, 지식을 얻는 자체가 감동이 될 수 있다면 이 얼마나 멋진 일인가. 책을 펼쳐보면 정말 놀라운 지식의 향연이 전개된다. 우리가 대중 눈감고 살아가는 우리 사회의 치부, 까마득하게 잊고 살아가는 내 내면의 소리와 모습들, 아차 하면 놓치기 쉬운 사회현상들,

굳이 찾아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역사적 진실들...얼마든지 무거워질 수 있는 주제들인데도 간결한 문장과 한 눈에 속 들어오는 숫자, 통계와 적절한 자료사진들로 정리돼 선명한 메시지로 다가오는 것이 방송화면을 책으로 그대로 옮겨놓은 느낌이다.

전 세계 증권인들의 우상으로 불리는 미국의 투자가 워런 버핏(Warren Edward Buffett)이 6살 때부터 콜라를 팔아 돈을 벌기 시작했고 11살 증권객장 아르바이트로 생애 첫 주식을 구입했다는 것은 나는 이 책을 통해 알았다. 그의 투자원칙 첫째는 ‘돈을 잃지 않는다’, 투자원칙 둘째는 ‘첫번째 원칙을 반드시 지킨다’란다. 결국 그가 말하는 성공투자의 비밀은 가치투자. “사람들은 가치보다 가격에 더 주목한다. 가격은 당신이 지불하는 것이지만 가치는 당신이 얻는 것이다”라는 그의 말처럼 가치투자를 통해 엄청난 부를 획득한 그는 5개의 자선단체에 보유재산의 85%를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한다.

요즘 트렌드라 할 수 있는 성공학 관련 책들을 좀체 보지 않는 내가 전혀 거부감 없이, 이질감 없이 읽을 수 있는 이 같은 내용들이 가득한 책이 바로 『지식⑥』이다. 참으로 친절하고 친근하게 필요한 지식을 주는 고마운 책이다. 그래서 때로는 아, 내가 몰랐던 사실이 이렇게나 많다니, 우리 사회에 이렇게 많은 불편한 진실들이 숨어 있었다니 새삼 깨닫게 된다. 학교 공부에, 취업 공부에, 영어 공부에 치지고 허기진 뇌와 가슴에 신선한 공기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 딱 필요한 책이 아닌가 싶다. 마치 내가 문자의 숲에서 잠시 도피해 있다가 다시 그 숲으로 들어가는 초입에서 만나고 싶은 책이 이것이었듯이.

조선휘(제주문화예술택단 문화기획팀장)



『지식⑥』 EBS지식채널 ⑥ 저

제주대학교59기수습기자모집

수습기자가되면

- A급 장학혜택 장학금 및 취재료, 원고료, 식비 제공
- 다양한 취재 기회 제공 (미국,일본,중국 등 해외 원정 취재/국내외 다양한 기획 취재 및 연수제공)
- 멀티미디어기기 제공 개인 데스크 및 취재용 카메라, 편집용 컴퓨터
- 현직기자에게 배우는 기자교육 및 실습 (보도기사작성에서 보도사진 등)
- 차세대 신문제작 시스템을 이용한 신문편집교육

모집대상 : 아라캠퍼스, 사라캠퍼스 11학번 학생
원서마감 : 6월 8일
장 소 : 본관 대학원동 3층 언론미디어센터 내 제주대신문사
문 의 : 제주대 신문사 (754-2277)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언론미디어센터에는 꿈을 찾는 이들 꿈을 꾸는 이들 꿈을 만들어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밤에 맘이 나도록 뛰어다녀도..우리는 두근두근 가슴이 뭉클합니다.

청춘 20대! 가슴뛰는 일상으로 바르게살까요?

제주대학교 언론미디어센터



강정마을은 ‘갈기갈기’... “해군기지 건설 중단해야”

대학생들의 강정기행

파도는 부서진 바위를 붙잡고 엉엉 울었다. 날카롭게 쪼개진 바위틈으로 게들이 어색하게 기어간다. 부서진 바위틈으로 간신히 뿌리내린 꽃도 보인다. 강정마을 해안가는 해군기지 공사로 그렇게 무너져가고 있었다. 벌써 햇수로 4년째. 그런데 해군기지와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강정바다에 대학생들이 모였다. 순수하게 대학생들로 구성된 ‘인문학을 공부하는 제주지역 대학생 모임’의 회원들이 대학생들만의 강정기행을 계획한 것이다. 제주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홍보와 입소문만으로 대학생들이 모여서 지난 14일 총 열명이 강정으로 향했다.

학생들이 강정을 찾아온다는 소식에 강동군 마을회장은 손수 12인승 차량을 몰고 제주시로 넘어왔다. 신용인(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학생들의 멘토를 자처해 함께 차에 올랐다. 참석한 학생들은 해군기지 문제에 대해 어렴풋이 알고 있거나 몰랐다. 신용인 교수가 해군기지 문제에 대해 입을 열었다.

“강정해안가는 한라산, 성산일출봉과 함께 절대보존지역이에요. 환경적 가치가 아주 뛰어난 곳이지요. 하지만 김태환 전 도지사는 해군기지 건설이 국책사업이란 이유로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강정해안의 절대보존지역을 해제했습니다. 제주의 환경정책의 근간인 절대보존지역을 해제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해군기지가 이대로 강행된다면, 국가사업이란 절대보존지역이든 어디든 상관없이 개발할 수 있다는 선례가 되는 거예요.”

신 교수는 착잡한 듯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어갔다. “더 비극은 마을 공동체가 완전히 갈라졌다는 사실이에요. 서귀포신문의 2009년 정신건강조사에서 강정 주민 43.9%가 자살충동을 느꼈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 절반 가까이가 죽고 싶다는 거예요. 이런 폭력입니다. 이대로 진행되면 제주는 평화의섬이라는 간판을 내리야죠.”

여기저기서 탄식이 터져나왔다. 신 교수는 강정해군기지가 미군의 항공모함 정박기지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덧붙였다. 공사중인 강정 해군기지 부지



지난 14일 강정마을을 종역바다에서 강동군 강정마을회장이 학생들에게 해군기지 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에 15만톤 초호화 크루즈 정박시설을 짓고 있는데, 보안이 중요한 군사시설에 크루즈의 정박은 사실상 허구나 다름없다는 설명이다. 결국 강정 해군기지가 미국의 중국 견제수단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평화와 환경을 무너뜨리면서까지 해군기지를 건설해서 제주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제주가 환경과 평화의 소중함을 진작에 깨달았으면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을거예요. 특히 제주의 미래를 짊어질 제주대학생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 침묵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들 마음에 무거운 고민의 추를 단 채 종역바다에 도착했다. 차에서 내리자 부서진 구럼비바위들이 가장 먼저 눈에 띄었다. 바다 코앞까지 바위가 부서져 있었다. 먼 바다까지 공사가 뻗어나갈 것이라 생각하니 다들 눈앞이 캄캄해지는 모양이었다.

현치훈(사회 4)씨는 함께 온 학생들과 현장을 바라보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한다. 현씨는 “결국 인간도 자연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토록 자연을 파괴해도 되는지 의문”이라며 “평소에도 해군기지 문제를 보며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직접 공

사현장을 와보니 느끼는 바가 많다”고 말했다.

아직 부서지지 않은 구럼비바위에는 홍합 등이 웅크려 붙어있었다. 또 바위 밑에는 장마철이 되면 곧 고개를 들고 기어나올 게들이 자리잡고 있었다. 바위 틈새에는 풀과 꽃이 남싹했다. 그야말로 걸음마다 생명, 평화였다. 작은 생명들이 평화롭게 지내는 바닷가에서 평화를 내며 돌을 부었다는 사실이 모두들 믿기지 않는 듯 했다.

장봉수(컴퓨터공학 4)씨는 “이렇게 아름다운 바다 위에 부서진 바위가 놓여 있다는 것 자체가 믿기지 않는다”며 쓸쓸함을 감추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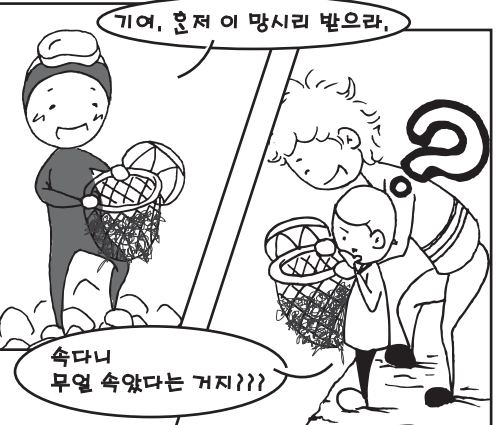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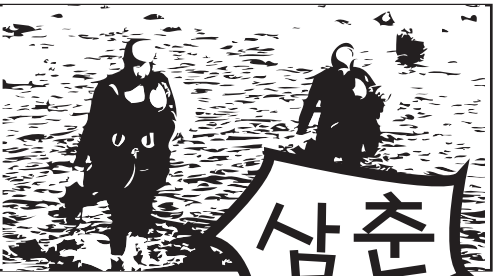
강동군 마을회장은 마을주민들이 생업을 포기하면 서까지 바다를 지키는 이유를 이야기했다.

“강정주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겠어요. 그러나 국가시책사업이란 면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오히려 주민들의 삶을 무너트렸습니다. 강정 이전에 해군기지 입지로 선정됐던 화순이나 안덕은 여전히 주민간 갈등의 골이 메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강정마을의 해군기지 유치는 2007년 4월

만화로 배우는 제주어

② 속아수다



*날말풀이
허난: 하니까, 기여: 그래 혼져: 어서,
망시리: 망사리, 개민: 그러면, 알아지켜라?: 알겠어?

고용희 기자

“해군기지 건설 반대 위해 대학생들 앞장서야”

인터뷰 고권일 해군기지반대대책위원장

제주해군기지 무엇이 문제인가

“제주의 최대 가치는 환경이다. 사람들이 제주를 찾은 이유는 최신시설을 즐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주의 빼어난 자연환경을 보기 위해서다. 특히 강정해안에는 각종 멸종위기 동식물을 비롯해 천연기념물 연산호 군락지가 있다. 해군기지는 강정바다에 살아 숨쉬는 모든 생명을 위협한다. 또 강정해안은 절대보존지역으로, 특히 제주 해안가에 있는 절대보존지역은 3% 미만이다. 그런 지역에 들어서서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군기지 건설이 진행되고 있다. 이

를 방관하는 것은 제주의 모든 자연환경을 파괴해도 좋다고 승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와함께 아무리 국가사업이라고 해도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들어오는 행위는 있어서는 안된다. 주민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충분한 공청회나 설명회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강정 해군기지는 입지선정과정을 비롯한 많은 부분이 비민주적으로 진행됐다.

해군기지는 안보적 정당성도 없다. 중국, 일본이라는 두 강대국 사이에서 힘으로 살아남겠다는 전략은 우리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이다. 소모적인 군비경쟁을 하기 보다는 동북아에서 전쟁이 벌어지지 않도록 외교적 처신을 잘 해서 안보비용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더불어 제주도에 군사기지가 들어오면 관광지로서의 개발가능성을 점점 상실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오키나와의 경우 군사기지의 보상금을 포함한 경제적 효과는 1960년대 50%였지만 50년이 지난 지금 단지 전체 GDP의 5.5%에 불과할 정도로 작아지면서 지역의 관광산업으로의 전환을 어렵게 하고 있다. 1998년 주민투표에서 주민의 85%가 미군철수를 요구할 정도다. 군사기지 대신 제주를 평화의 장으로 활용해 평화산업을 일으켜야 한다.”

대학생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대학생들은 기성세대와 달리 이익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양심에 따라 목소리를 내주지 않는다면 그사회는 이미 잠든 사회라



고권일 강정해군기지반대대책위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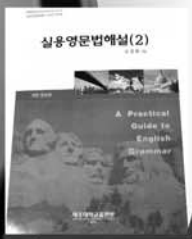
고 할 수 있다. 대학생들이 행동하는 양심으로 해군기지 문제가 왜 제주사회에서 중요한지를 스스로 깨닫고 사회에 알렸으면 한다. 기성세대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말고 젊은 세대만의 문제의식과 해결방안을 기대한다.”

고용희 기자

제주대학교 출판부



『물권법』은 기존의 교과서로서의 성격을 그대로 견지하면서도 최근 사법시험 등 각종 국가고시에서 강조되고 있는 판례이론을 가급적 많이 섭렵하려고 하였다. 또한, 이론의 정리에 있어서 기본적인 논점들을 중심으로 균형 있게 서술하였고, 통설적 견해와 더불어 여러 학설을 소개하고, 판례의 입장을 반드시 언급함으로써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실용 영문법 해설』 2권. 이 책은 문법 사항들을 단편적으로 나열하는데 그치지 않고, 각 문법 범주들과 관련된 문법 사항들을 산 영어에서 가려 뽑은 충분한 예문들을 곁들여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해설하는 책이다. 부정사절과 동명사절, 분사와 분사절, 가정법, 형용사, 부사, 전치사의 구조와 의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어어휘 STORY TELLING』은 영어의 단어들 속에 담겨 있는 숨은 이야기들을 영어학습자들이 쉽게 공감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흥미롭게 풀어 놓았다. 어려운 문법적 용어들을 가능한 한 배제하면서, 영어 단어들 속의 어근과 접사들이 어떠한 의미관계로 결합되어 있는가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였다.



『친족 상속법』은 법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한 교재이다. 이 교재는 친족상속법의 전체적인 틀을 쉽게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법조문과 법조문에 대한 이론을 설명하였고 이와 관련된 판례를 소개하여 실질적인 사건에서 관련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법이론을 설명함에 있어서 장황한 이론이나 학설은 생략하고 통설 또는 다수설 그리고 판례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해사법규(2011 개정판)』은 수산·해양계 대학에서 해사법규를 강의하는 교재용 참고도서 뿐만 아니라, 각급 해기사 및 해양경찰 수험생을 위한 참고도서가 될 수 있도록 지난 2003년 8월에 초판을 발행한 ‘해설 해사법규’ 내용을 중심으로 해 그 후 개정된 내용과 새로운 법규를 첨가하여 2011년도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해양생산지구공학』은 수산계 대학생, 어업기술자, 수산관계 공무원,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을 위한 책이다. 이 책은 수중에서 움직이고 있는 어구에 대해서 수리 역학적으로 해석하였으며 장서론, 전개판, 어구의 상사법칙, 어구의 어획성능, 어구 계측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양경찰법』은 해양경찰학과나 경찰행정학과 학생들은 물론 해양경찰에 종사하는 경찰관들과 해양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을 위한 책이다. 이 책에서는 경찰행정의 일반이론과 더불어 해양법과 해양경찰의 직무를 다루었고, 해양경찰에 관련된 모든 법리를 일목요연하게 살펴볼 수 있게 하였다. 행정법의 일반 이론을 토대로 경찰공무원법, 경찰법 등의 기본적인 법칙적인 내용과 해양경찰의 직무와 관련 있는 기초이론, 수사 관련 이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도의 길을 보았습니다” 예비교사들의 교생실습

● 짝중우돌 교생실습기

5월을 수놓는 많은 기념일 가운데 스승의 날은 유독 대학생들의 관심을 끌지 못 하는 기념일이 돼가고 있다. 석가탄신일이나 어린이날처럼 휴일도 아니고, 대동제나 체육대회 같이 흥미를 끌 요소도 없기 때문이다. 세월이 흐르면서 스승의 대한 옛 감정도 퇴색돼 가는 것은 아닌지 안타까운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그러나 이런 흐름 속에서도 스승의 참의미를 몸소 깨달을 기회 갖게 된 이들이 있었다. 그들은 바로 ‘나는 교생이다’를 외치는 교생실습생들이다. 스승의 날을 맞아 학생으로만 생활하던 이들이 전하는 선생님이로서의 생활기를 통해 오늘날 스승의 참된 의미를 되짚어본다.

〈편집자주〉

수업 받는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항상 수업을 받기만 하다가 비록 교생실습이긴 하지만 잠시나마 타인을 가르치는 입장이 된 실습생들의 눈에는 모든 것이 낯설게만 느껴져요”

오유민 (중어중문 4)씨는 5월부터 제주고등학교에서 실습을 시작했다. 지겹게 교복을 입었던 중·고등학교 시절이 불과 몇 년 전이건만 선생님의 눈을 통해 본 학교 풍경은 왜 이리 낯선지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인사를 건네는 고등학교생들을 보면 그제야 “나도 선생님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한다. 처음 담당반의 학생들을 볼때는 왠지 모를 어색함에 말문이 막혔고 심지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담당하게 된 실습생들은 학생들의 험악한 분위기가 당황스럽기까지 했다고 한다.

피해할 수 없는 학생들의 짓궂은 장난

흔히 학교에 교생선생님이 오면 빼놓을 수 없는 게 교생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한 상황극이다. 우리 학교실습생들도 이 짓궂은 학생들의 장난을 피해 갈 수 없었다고 한다. 오화연 (중어중문 4)씨는 아이들과 더욱 더 친해지기 위해 원래 종례시간보다 조금 더 일찍 교실을 찾았다. 그러나 그녀는 그곳에서 두 명의 여학생이 치고받으며 살벌하게 싸우는 모습을 목격하게 됐다. 그녀는 이 두 여학생을 떼어놓고 달래느라 정신이 없었다. 주위에 있는 많은 학생들이 있었지만 정작 이들은 항상 있었던 일인 것처럼 두 여학생의 싸움을 보고만 있었기에 그녀는 더욱 더 당황했다. 그녀의 눈물 나는 노력에도 상황은 점점 악화되어 갔고 그녀는 담당선생님을 부르는 최후의 수단까지 생각하게 됐다.

바로 그 순간 치열하게 싸우던 두 여학생을 포함한 반 전체가 “교생 선생님 몰래카메라 대성공!”이라고 소리치며 웃고 떠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제야 자신이 학생들에게 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때를 다시 생각하면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다”며 허탈하기도 하고 안심이 되기도 했던 당시 심정을 말했다.



지난 13일 제주고등학교에서 현장아(중어중문 4)씨가 중국어 수업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학교에 교생선생님이 오면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투표를 통해 최고로 인기 있는 선생님을 뽑곤 한다. 올해 최고 인기 교생선생님은 김난금 (식품생명공학 4)씨다. 특유의 다소곳한 목소리와 아름다운 외모는 그녀에게 엄청난 인기를 안겨줬다. 주위 교생실습생 역시 그녀에게 “인기가 있으니 학생들이 더욱 말을 잘 듣지 않나”며 부러운 시선을 던지곤 한다. 그러나 정작 그녀는 “오히려 학생들이 나를 더욱 만만하게 보는 것 같아 불만”이라며 자신의 속내를 털어 놓았다. 인기인들도 나름대로의 고통이 있는 것이다.

공공교실은 교생선생님들의 아지트

마을 곳곳의 소식을 듣고 싶다면 마을회관에 가서 어르신들의 말씀의 귀를 기울이면 되고 아파트 곳곳에 소식을 듣고 싶다면 아파트 부녀회 모임에 나가 아주머니들의 수다에 귀를 기울이면 되듯이 학교 곳곳의 소식을 듣고 싶다면 교생선생님들의 아지트인 공공교실로 가면 된다.

이 곳은 교생선생님들만을 위한 공간으로 쉬는 시간이나 수업이 없는 시간에 교생실습생들이 머무는 장소다. 이 교실에 앉아서 가만히 귀를 기울이면 어느 반이 말을 잘 듣는지 어떤 학생이 자주 실습생들을 골방 먹이는지 등 유용한 정보(?)를 한눈에 접할 수 있다.

또 이곳은 실습생들의 끝나지 않는 과제인 교육실습 일지를 쓰는 도서관 역할도 톡톡히 하는 고마운 공간이다. 계획표에 맞춰 주제별로 담당 선생님들이나 교직원들이 찾아와서 교생실습생들을 교육하는 선생님들의 교실이 되기도 한다. 또 가끔은 실습생들과 친해진 학생들이 찾아와 잠시나마 이야기꽃을 피우기도 한다.

학창시절 쉬는 시간 종소리를 간절히 기다리던 기억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사실 교생실습생들도 이런 종소리를 기다린다고 한다. 심지어 어떤 실습생들은 쉬는 시간 10분이 너무나 짧다며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한다. 수업시간 동안에 느낀 긴장감을 풀기에 10분이라는 시간은 너무나 짧은 것이 그들의 의견이다. 학생들은 조금이라도 더 놀기 위해, 실습생들은 조금이라도 더 쉬기 위해 그들은 독립투사가 광복을 기다리듯 해방의 종소리를 기다린다.

고등학교 때보다 더 이른 기상시작

대학생이 돼서 자유롭게 수업시간을 조절하다보니 해가 뜨기 전에 기상을 한다는 것은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돼 버렸다. 지금 생각해보면 고등학교시절에는 어떻게 이른 시각에 일어날 수 있었을까하고 의문이 들기도 한다. 교생실습생들의 오늘도 이른 새벽에 기상을 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현정아 (중어중문 4)씨는 “평소 학교를 다닐 때는 크게 신경 쓰지 않던 것들이 학생들 앞에 서게 된다는 생각에 한 번 더 거울을 보고 신경을 쓴다”고 한다. 또 이렇게 아침마다 전쟁을 치르다 보면 아침식사를 거르는 것은 예삿일이 된다. 실습생들 대부분이 차가 없기 때문에 집이 약간이라도 먼 학생들은 아직 사위가 밝지 않은 5시 30분 정도에 기상을 한다. 또 실습생들 사이에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 당번을 맡는 날이면 기상 시간을 더욱 더 이른 새벽으로 당겨진다. 오늘도 그들은 눈을 비비며 이른 시각에 기상하고 있다.

고등학교생이 대학만 가면 공부를 안 할 거라고 생각하듯 그들도 실습을 가면 과제에 마수로부터 벗어날 수 있

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교육실습일지라는 새로운 과제였다. 실습생들은 매일 매일 정성껏 교육실습일지를 작성해서 퇴근 전에 지도교사와 교무부장선생님, 교감선생님에게 검사를 받는다. 김태중 (물리학과 4)씨는 “직접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 외에도 조·총례 시간에 학생들을 만나는 일과 이렇게 교육실습 일지를 작성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된다”며 “이런 과정 하나하나가 소중한 경험이란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실습생들의 퇴근 시간은 4시 30분이다. 어떻게 보면 꽤나 이른 시각에 퇴근을 하기에 역시 선생님들은 좋은 직업이구나란 생각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정작 실습생들은 집에 돌아온 직후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선생님들께 배워 맞추자 학생들 상대하라 그들은 하루 종일 긴장감을 유지한 채 생활해야 한다.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집에 돌아가면 긴장감이 풀려 축 처져 버린다. 그래서 아무리 일찍 퇴근을 해도 풀죽은 파김치마냥 축 처져서 다른 일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들이 이렇게 파김치가 되어버린 이유는 아마 불명료 요령도 없이 하루를 젊음과 열정만으로 보내기 때문일 것이다.

고생한 만큼 보람도 느껴진다

금요일 종례시간에 학생들은 이를 후로 다가온 스승의 날을 맞아 담임선생님과 교생실습생 몰래 스승의 날 파티를 준비했다. 김민형 (중어중문 4)씨는 “학생들이 말을 잘 듣지 않아 힘이 들었는데 그래도 보람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비록 화려하지는 않지만 조금씩 돈을 모아 마련한 초코파이케익이 마음을 훈훈하게 했다.

김태중 (물리 4)씨는 “전공 공부 이외에 이렇게 실제로 선생님 역할을 해보니 학교에서 배웠던 것과는 다른 새로운 경험들을 할 수 있었다”며 “학생들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내가 선생님이로 이 자리에 서있음을 다시 한번 자각하게 한다”고 말했다.

실습생들의 생생한 경험담이 오늘날 계약적인 관계로 퇴색되어 가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보게 한다. 스승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것이 한낱 지식의 부스러기가 아니라 인생을 먼저 경험한 사람들의 살아있는 지혜라는 것을 우리는 스승의 날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이다.

신동원 수습기자

패션리더 교생선생님이 공개하는 패션노하우

- 단정한 옷차림이 중요
교생도 실습생이다. 배우는 입장인 만큼 단정한 옷차림이 가장 중요하다. 미니스커트나 스קי니진, 반바지 등은 패션 테러리스트가 되는 지름길!

-너무 얇은 옷은 금물
교생실습기간인 4~5월은 일교차가 크다. 게다가 아침 일찍 등교해야 하기 때문에 보온이 잘 되는 옷차림이 안정맞습니다.

문악단신

수익학과 그룹사운드 공연

수익학과 그룹사운드 'The VET'가 다음달 4일 오후 7시 문예회관 소극장에서 공연한다. 'The VET'는 보컬, 기타, 베이스, 드럼, 키보드로 구성된 밴드다. 이번 'The VET'의 공연은 Rock 콘서트로 진행된다. 티켓은 2000원이다.

문의사항=010-9989-9883

1인극 '명성황후' 24일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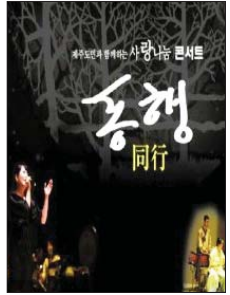


1인극 '명성황후, 내가 할 말이 있다'가 오는 24일부터 이틀간 오후 8시에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이 1인극은 명성황후를 재조명한 작품으로, 단순히 권력을 가진 왕비로서가 아니라 한편으로는 아내이자, 며느리이고, 어머니였던 명성황후의 인간적인 모습을 그려냈다. 공연시간은 70분이다. 티켓은 일반인 3만원, 학생은 1만원이다.

문의=010-7769-2572

사랑나눔 콘서트 동행 21일



제주도민과 함께하는 사랑나눔 콘서트 동행이 오는 21일 오후 7시부터 제주아트센터에서 열린다. 국악 실내악과 전통연희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Pirates of the Caribbean (영화 '케리비안의 해적 주제곡'), 인연 (영화 '왕의 남자' OST), 신밧놀이 등을 선보인다. 티켓은 모두 1만원이다.

실내악과 전통연희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Pirates of the Caribbean (영화 '케리비안의 해적 주제곡'), 인연 (영화 '왕의 남자' OST), 신밧놀이 등을 선보인다. 티켓은 모두 1만원이다.

'제주빌레앙상블' 29일 연주

팝재즈 밴드 '제주빌레앙상블' 제2회 정기연주회가 오는 29일 오후 7시 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이번 연주회에서는 제주빌레앙상블이 직접 작곡·편곡한 곡들이 연주된다. 티켓은 전석 1만원이다.

문의=010-5699-4964

해외견학 및 연수, 기업방문

세계자연유산유적지, 세계문화유산유적지, 세계유명명산, 해외감귤산업체방문, 해외물산업체방문
농업, 축산업기관방문 및 연수, 산업별 박람회 - 반도체, 기계, 건축, 제약, 바이오, 식품 등..

중국

북경/만리장성 4일

제주-북경-천안문광장-자금성-만리장성-이화원

상해/항주/소주 4일

제주-상해-소주출정원-항주서호-황포강유람선-외탄야경

상해/장가계 5일

제주-상해-장가계-천자산-보봉호-황룡동굴-백룡엘리베이터

일본

동경/후지산 4일

제주-나리타-외쿠타니계곡-하코네유람선-긴자거리-신주꾸거리

오사카/나라/교토 4일

제주-오사카-동대사-청수사-오사카성-고베

대만 4일

제주-부산-타이베이-화롄-태극로-아류-양명산온천-국립고궁박물관

싱가폴/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5일

제주-인천-싱가폴-바탐섬-조호바루-센토사섬

필리핀 5일

마닐라 5일

인도 8일

인도/젠지스 8일

베트남 5일

베트남북부/하롱베이 5일

홍콩 4일

제주-인천-홍콩-해양공원-리펄스베이-빅토리아산정

지중해 8일

터키/그리스 8일

캄보디아 5일

캄보디아/앙코르와트 5일

태국 8일

방콕/파타야 8일

호주 6일

시드니 8일

미주 8일

미등부 8일

미서부 8일

케나다 8일

유럽 8일

서유럽 8일

동유럽 8일

북유럽 8일

제주랜드가
자매회사

JR투어

하너투어전문 판매대리점

정명 및 견적문의
TEL.748-2002

담당: 문인관 [일어일문학과졸업]
H.P: 010 - 4693 - 2394

제이알투어(주) 제주시 연동 2312-1, 국외여행업등록 94호, 제주도의 토종기업, 34년 전통 제주랜드가 자매회사, 해외여행, 국내여행, 렌트카를 포함한 광범위한 영업